노사발전재단 Korea Labor and Employment Service | 보도자료 |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2.(월) 10:00** (2026. 11. 2.(월) 석간)

노사발전재단, 남아시아 3개국과 청년고용 지원을 위한 공공고용서비스 협력 확대

- 방글라데시·부탄·몰디브 정부 관계자 21명 초청, 11.2~6. 역량강화 연수 실시
- ▲한국 공공고용서비스 정책 ▲고용 24 운영 경험 공유 ▲대학 진로취업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 현장 방문 ▲국가별 정책과제 토론 및 실행계획 수립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 이하 '재단')은 **11월 2일(월)부터 6일(금)까지** 서울 엠갤러리에서 **방글라데시·부탄·몰디브 정부 관계자 21명**을 초청해 **한국의 공공고용서비스**(Public Employment Services, PES) **정책**과 **현장 운영 경험을 공유**하는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추진하는 남아시아 5개국* 공공고용서비스 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들**이 교육과 직업훈련을 마친 후 **노동시장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각국의 고용서비스 정책**과 **현장 실행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남아시아 5개국: 스리랑카·방글라데시·부탄·몰디브·네팔

스리랑카 1차 연수 성과 바탕으로 3개국 공동 정책학습 확대

재단은 지난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스리랑카 노동부 인력·고용국(DoME) 공무원 10명을 대상으로 **1차 초청연수**를 실시하고, **한국의 고용서비스 정책과 현장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 이를 바탕으로 스리랑카의 노동시장 정보 분절, 담당 인력의 전문성 부족, 교육·직업훈련과 노동시장 수요 간 불일치, 진로지도 서비스의 접근 제한 및 분산, 취업성과 추적 미흡 등 **5가지 우선 정책과제를 구체화**한 바 있다.

이번 2차 연수는 방글라데시·부탄·몰디브 3개국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연수로, 각국의 고용서비스 운영 현황과 정책과제를 공유하고 국가 간 경험을 비교·논의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한국의 공공고용서비스 정책과 현장 운영 사례를 각국의 여건에 비추어 살펴보고, 자국에 적용가능한 정책개선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대학 진로지원부터 고용센터 취업지원까지… 현장에서 배우는 한국의 고용서비스

연수 프로그램은 한국의 공공고용서비스 발전 과정과 중앙·지역 간 서비스 전달체계, 노동시장정보시스템(LMIS), 디지털 고용서비스 플랫폼 '고용24'의 구축·운영 사례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기반 고용서비스와 고용행정통계 활용, 직업교육훈련(TVET)과 고용서비스의 연계, 청년 진로개발 및 학교-노동시장 이행 지원 정책 등을 폭넓게 다룬다.

특히 이번 연수에서는 정책과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대학과 지역 고용서비스 기관을 직접 방문한다.

참가자들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진로취업지원센터에서 대학생의 진로설계와 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서비스 운영 사례를 살펴본다. 이어 서울북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 구직상담, 취업알선, 직업훈련 연계 등 지역 기반 고용서비스가 구직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청년의 진로탐색부터 취업 준비와 구직활동에 이르기까지 교육기관과 공공고용서비스 기관이 수행하는 역할을 이해하고, 각국의 서비스 전달체계와 현장 지원역량을 개선하기 위한 시사점을 모색한다.

3개국 정책과제 비교·토론… 국가별 실행계획 수립

3개국 대표단은 국가별 발표와 토론을 통해 자국의 노동시장정보시스템(LMIS) 운영 현황과 활용 가능한 고용통계, 정보 격차 및 개선 수요를 공유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별 공통 과제와 차이점을 살펴보고, **한국**의 **디지털 고용서비스** 및 **청년고용지원 경험**을 자국의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연수 마지막 날인 11월 6일(금)에는 **정책 강의**와 **현장 방문**, 국가별 토론 **결과**를 **종합**하여 각국의 우선 정책과제와 추진 방향을 담은 **실행계획**(Action Plan)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수에서 습득한 **한국의 정책 경험**을 각국의 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개선 과제로 발전**시키고, 향후 현지 정책협력의 기반을 마련한다.

한국 초청연수에서 현지 정책협력으로... 지속 가능한 고용서비스 개선 지원

이번 연수의 성과는 한국에서의 정책학습에 그치지 않고, **각국 현지**에서의 **정책 논의**와 **실행계획 구체화**로 이어진다.

재단은 **내년 남아시아 각국**에서 **개최**되는 **이해관계자 워크숍**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현지 워크숍에서는 국가별 고용서비스 진단 결과와 초청연수에서 논의된 정책과제를 바탕으로 **정부, 고용서비스 기관, 교육훈련기관** 등 관계자들이 **정책의 필요성**과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국가별 정책 로드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재단은 **ADB와 협력**하여 **국가별 현황 진단**부터 **한국 초청연수**, **현지 이해관계자 협의**, **정책 실행계획 구체화**까지 이어지는 단계적 협력체계를 통해 **남아시아 5개국**의 **공공고용서비스 역량강화**와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공공고용서비스의 성과는 좋은 제도를 갖추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과 구직자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을 **실제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며, “이번 연수가 **한국**의 **정책**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남아시아 각국의 고용서비스 개선 방향**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재단은 ADB 및 각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이번 연수**에서의 **학습**과 **논의**가 **현지 정책개선**과 **실질적인 청년고용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국제협력팀	책임자	팀 장	류혜영 (02-6021-1073)
		담당자	전문위원	배지홍 (02-6021-107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